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봉 섭*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이 적었던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가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19년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조사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조사 패널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20~50대 이하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추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51.5%가 남성, 48.7%가 여성이었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요인 등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비행 동료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무관용적인 태도 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안했다.

주제어 :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 사이버폭력 태도, 매개효과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ult Cyberbullying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n the attitude to cyberbullying

Kim, Bong-Seob*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auses of adult cyberbullying, an issue which arouses little academic interest despite its seriousness and its harmful consequence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formulation of reasonable measures for preventing and reducing adult cyberbullying. To that end, the author of the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led Cyber Violence Survey conducted in 2019. First, the online survey panel owned by the research company selected a sample of 1,500 adult men and women in their 20s to 50s in proportion to reflect the composition of the local popul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with male subjects and female subjects accounting for 51.5% and 48.7% of the respondents,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s cyberbullying was fully mediated according to such factors as gender, age, family relations,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Internet usage time, and contact with illegal content. In addition, partial mediation was observed with regard to online delinquency colleague numbers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s a result,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s cyberbullying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adult cyberbully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rmation of a non-conservative attitude towards cyberbullying should be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ctors when preparing programs aimed at preventing cyberbullying.

Keywords : cyberbullying, cyberbullying perpetrati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ttitude to cyberbullying, mediation effect

I. 서론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구나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흔히 사이버폭력이라 한다. 여기서 사이버폭력은 “개인 또는 집단이 타인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기구를 이용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Tokunaga, 2010)”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정보통신기구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인 비방, 욕설, 배척,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갈취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사이버폭력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면대면 폭력과 비교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서의 의도성과 행위의 반복적인 특성은 동일하지만, 힘의 불균형¹⁾ 상태는 불명확하며, 정보통신기구나 서비스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구분된다.

사이버폭력 문제는 단순히 폭력에 사용되는 도구의 차이가 아니라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중대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은 불안감, 당혹감, 죄책감, 두려움, 고독감, 당황스러움, 분노, 슬픔,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Seo & Cho, 2013; Fisher, et al., 2016; Hinduja & Patchin, 2007; Kowalski, et al., 2008; Shariff, 2009). 심지어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2.23배 더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Kaplan, 2014). 사이버폭력 가해자들도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은 음주나 약물남용,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부작용, 신체적·성적 남용, 태만 및 공격 행동 등과 같은 신체적·행위적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kunaga, 2010; Samara, et al., 2017).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은 사이버상에

서 타인을 공격하는 동안 죄의식, 수치심, 그리고 후회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Cross, et al., 2015; Rapheal, 2018).

최근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사이버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 기관인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과반(53%)이 혐오표현으로 인한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9).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41%가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는 64%가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Vogels, 202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은 응답자의 54.7%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 26.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보다 성인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성인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여러 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2010년 미국에서는 럿거스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Tyler Clementi(당시 18세)가 사이버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강원도 고성에 사는 한 노인이 경제력과 차림새 등의 이유로 사이버따돌림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연예인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과 비난 등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이 청소년들보다 성인들 사이에

1) 전통적인 면대면 폭력에서는 신체적·사회적 차이가 힘의 불균형으로 나타났으나 비대면적이고 익명적 특성을 지닌 사이버공간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힘의 불균형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역량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는 주장(예를 들어 Görzig & Machackova, 2015; Slonje, Smith, & Frisen, 2013)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함에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Tokunaga, 2010; Jun & Kim, 2015). 실제로, Chung, et al.(2016)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국내 19편, 국외 39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국내 11편, 국외 21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 편수는 국내 2편, 국외 5편으로 총 7편에 그쳤다. 사이버폭력의 대상들을 분석한 해외 자료에서도 아동들 간의 사이버폭력 연구가 전체 5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성인들 간의 사이버폭력 연구는 1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Vandebosch, et al., 2013).

이러한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의 부족은 사이버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을 초래한다. 성인대상 사이버폭력의 원인은 무엇이고,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사이버폭력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은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부재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빈번함과 사안의 심각성, 피해의 막중함에도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 조항이 유일하다. 그것도 사이버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서 사이버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들에 대한 처벌 및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Lee, et al., 2015). 청소년의 경우 많은 연구 결과들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피해들이 잘 알려져 있으며 대응책 또한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상담과 치유 등 여러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실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자료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그동안

규명 노력이 부족했던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성인대상의 사이버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규명과 함께, 피해 경험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 사이버폭력 현상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이버폭력 개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Beran and Li(2007)는 “폭력이 디지털로 가버렸다(Bullying has gone digital)”라고 까지 했다. 문제는 대면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간접 폭력인 사이버폭력이라 해도 면대면 폭력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주로 문자, 이미지, 영상, 음성 등과 같은 상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이버폭력이지만, 물리적 힘의 사용에 따른 신체의 상흔이나 충격만큼의 고통을 사이버폭력 피해자에게도 준다는 것이다.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적 자기공명영상)로 뇌를 조사한 연구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뇌의 영역과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때 반응하는 영역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Satoshi Kanazawa, 2012). 간접 폭력이 직접 폭력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정신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에 버금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게 폭력 행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욕설(Flaming), 사이버모욕(Harassment), 명예훼손(Denigration), 신분사칭(Impersonation), 폭로(Outing), 협잡(Trickery), 따돌림(Exclusion) 그리고 사이버스토

킹(Cyberstalking) 등으로 분류한다(Moor, 2011; Willard, 2007). 반면, Patchin and Hinduja(2010)는 사이버폭력을 괴롭힘과 협박, 위협, 비방, 허가받지 않은 정보 유포로 간단하게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ee, et al.(2015)과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6)에서 사이버폭력 유형화 연구를 실시하여 사이버폭력의 행동 유형들을 구분했다. 먼저, Lee, et al.(2015)은 사이버폭력을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과 스토킹, 이미지 도용 및 손상털기, 사이버갈취 및 명령, 사이버성폭력, 이미지블링,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등 8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6)에서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따돌림,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갈취, 신상정보 유출 등 7가지를 도출했다. 2018년부터는 사이버강요를 추가하여 현재 총 8개 유형을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발달로 외국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는 사이버감옥이나 사이버갈취와 같은 독특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행동이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같은 스마트폰 채팅 메신저 사용의 대중화와 스마트폰 소액 결제의 활성화로 외국과는 다른 사이버폭력 행동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구나 서비스 특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폭력 형태라 할 수 있다.

2.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사이버폭력의 원인 규명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원인을 알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사이버폭력 가해 원인은 크게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 요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은 성별, 연령, 개인 기질 등이다. 성별에 대해서는 사이버폭력이 경우 신체적 접촉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증명하는 연구가 여럿 존재한다(Adams, 2010; Tokunaga, 2010). 반면, 사이버공간에서도 여전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이버폭력이나 사이버 언어폭력 등과 관련한 가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Park & Jung, 2018; Lee & Woo, 2010). 사이버공간에서도 공간적 특성보다는 남성의 폭력적 본성이 더욱 우세하다는 점에서의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2학년(15세)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줄어드는 종형(Curve-liner)의 모습을 띄는 것으로 확인됐다(Williams & Guerra, 2007). 이러한 중학교 2학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이버폭력의 감소 추세가 성인에게까지 이어지는지는 성인 대상의 연구 부족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질적 특성과 관련해서 Lee, et al.(2017)에 따르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자기 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 Park, 2018).

다음으로 환경 요인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은 가족 관계 및 교우 관계와 관련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이 적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괴롭힘(Internet Harassment)에 대한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Ybarra & Mitchell, 2004).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부모지지(Wang, et al., 2009),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Aoyama, et al., 2012)와는 부적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들과 온라인 활동에 대해 대화를 하거나, 부모가 자녀들의 온라인

인 활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Taiariol, 2010; Wade & Beran, 2011).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에 가담하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Jun & Kim, 2016).

청소년의 사회화 및 발달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교우관계와 관련해서는 또래 애착이 강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준거가 되는 집단이 부모에서 또래로 바뀔 때 또래로부터 받는 사회적 인정, 유능감, 자존감 등의 획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과 같은 비행 행동은 또래집단의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선택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Kwon & Kim, 2019). 반면,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사이버폭력이 낮아진다는 상반된 결과(Lee, 2012; Lee & Lee, 2015; Jun & Lee, 2010)도 있다. 이는 사회 안에서 유대정도에 따라 비행행위를 덜 하게 된다는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의 틀 안에서, 중요한 타자인 부모, 교사,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이라는 비행적 행위를 덜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Kwon & Kim, 2019).

개인과 환경 요인 외에도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기구나 서비스 특성이 반영되어 발현된다는 점에서 현실공간에서와는 다른 요인들이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가적인 요인들이 검토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이용시간(Kim & Yoon, 2012), 온라인 비행 친구 존재 여부(Jun & Lee, 2010),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Kim & Yoon, 2012; Jun & Lee, 2010) 등이다. 이 중에서 사이버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인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는 특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Lee & Lee, 2013). 반면, Kim and Yoon(20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Yoon, 2012; Jun & Lee, 2010).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 대학생 및 직장인 모두에서 사이버 괴롭힘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ou & Cho, 2016). 이는 무엇보다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누구나 쉽고 용이하게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특정한 사람이 일탈적 행위 유형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차별접촉이론에 따라 폭력에 우호적인 사람과의 접촉은 폭력을 쉽게 학습하게 된다거나(Jang, 2009), 언어폭력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 사이버 언어폭력을 쉽게 하게 된다고 한다(Sim, et al., 2014). 이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서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높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요인, 환경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요인의 부작용이 사이버폭력 문제로 발현된다고 보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단선적 원인론에 입각해 문제를 바라볼 경우 개인, 가족, 사회 등 다양한 체계수준에 속한 변인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Kim & Yoon, 2012)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연구로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해법에 이를 수 있는 제약도 있다.

3.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

태도는 사회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에서 중요한 관심 주제다. 태도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그 태도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태도는 특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특정 행동의 방향을 예측하려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태도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영향을 주는지,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이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Lee & Jun, 2020).

여기서 태도는 개인이 대상에 대해 ‘옳다, 옳지 않다’,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등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내리는 정서적인 평가를 말하며, 대상이란 사람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 등을 포함한다. 대상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태도인 것이다(Eagly & Chaiken, 1993). 따라서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면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행동 실행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 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태도 및 특정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도덕 기준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Bandura, et al., 1996). 온라인에서의 행동연구에서도 개인 태도가 다른 여러 설명요인들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공간에서는 대체로 현실에서보다도 태도와 행동이 일치될 가능성이 높는데, 온라인공간에서는 즉각적인 상황적 압력이 적으며, 익명적인 특성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신념, 태도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Lee & Jun, 2020). 이처럼 태도는 온라인공간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이버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Lee(2006a, b)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사이버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Lee and Jeong(2014)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행위가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경우 실제 폭력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Meter and Bauman(2018)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도덕적 인식 수준이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Kowalski, et al.(2014)이 수행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공격과 도덕적 일탈에 대한 규범적인 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폭력을 용인하는 정도 즉, 폭력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사이버폭력을 활성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Kim & Youn, 2012; Hwang, 2008). 이처럼 사이버폭력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여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는 가는 사이버폭력의 실제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태도는 대부분 독립변인으로 고찰되어 왔다. 즉, 계획된 행위이론에 기반하여 다른 변인들과 함께 사이버폭력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갖는 이유가 사회로부터 학습했기 때문(Lee & Jun, 2020)이라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 변인 처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태도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받은 영향과 학습의 결과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소 상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Bandura(1977)는 관찰학습(Observation) 혹은 모델링(Modeling)이란 개념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변인들의 존재가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건전한 정보에 많이 노출될 경우 불건전 정보와 관련한 특정 행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거나, 주변 친구들의 폭력 행동이나 비행 등을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용인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사이버폭력 현상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

서도 자주 발생하고 매년 증가 추세²⁾임에도 관련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에서 성인 대상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6). 이러한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의 부족은 사이버폭력 현상에 대한 몰이해와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대응책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발생 원인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족과 친구 등의 환경요인이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통적인 면대면 폭력과는 상이한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영향을 살핌으로써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을 포함하여, 가족, 동료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인터넷 이용 시간과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등과 관련한 사이버 환경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과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가설1-1] 성인의 개인 요인중 남자이며, 고

연령, 저소득,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가질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많을 것이다.

연구가설1-2] 성인의 환경 요인중 가족관계 및 동료관계가 원만한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줄어들 것이다.

연구가설1-3] 성인의 사이버 요인중 인터넷 이용 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온라인 비행 친구 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등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 것이다.

Ajzen and Fishbein(1980)에 따르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행동 주체인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태도는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환경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도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가정, 친구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2]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2] 성인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가설2-1] 성인의 개인 요인중 남자이며, 고연령, 저소득,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가질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2-2] 성인의 환경 요인중 가족관계 및 동료관계가 원만할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2-3] 성인의 사이버 요인중 인터넷 이용

2)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은 '17년 29.8%, '18년 43.1%, '19년 54.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온라인 비행 친구 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등이 높거나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질 것이다.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특정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Ajzen, 1991)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특정 행위에 대한 정서적인 평가로써 태도를 독립적으로 이해했을 뿐 사이버폭력의 실행 과정으로서의 태도 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행위는 개별적인 영향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영향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3]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3] 성인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매개하는가?

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1차 데이터를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2차 처리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했다. 본 자료는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원 자료인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부터 59세까지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패널에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인구비례 할당해서 추출한 1,500명이었다. 조사는 추출된 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을 안내하

고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조사 대상이 아니면 추출에서 제외된 조사패널을 대상으로 대체 표본을 추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응답자 1,500명은 남성이 51.5%인 769명이었으며, 여성은 48.7%인 731명이었다.

3. 주요 변수

1) 독립변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 사이버 요인 등의 3체계로 구성했다. 먼저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소득, 자기통제력이 포함되었다.

- 성별 : 남자의 경우 '1', 여자의 경우 '2'에 표시하도록 했다.

- 연령 :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 '4'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 소득 : 개인 소득으로 월평균 임금에 대해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700만 원 미만, 700~800만 원 미만, 800~900만 원 미만, 900~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 자기 통제력 : '나는 작은 일에도 흥분한다'라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했다. 이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등 4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둘째, 환경 요인에는 가족 관계, 동료 관계 등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 가족 관계 : 가족 구성원과 관련해서 '내 결정/선택을 격려하고 응원', '내가 사회생활/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관심', '사소한 것도 물어보면 잘 듣고 대답' 등 3개의 항목으로 측정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등 4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표 1〉 변수 현황
 (Table 1) Variable Status

Division	Variable	Scale
Dependent variable	Cyberbullying perpetration	①Cyber verbal abuse(사이버 언어폭력) ②Cyber defamation(사이버 명예훼손) ③Cyber stalking(사이버 스토킹) ④Cyber sexual violence(사이버 성폭력) ⑤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신상정보 유출) ⑥Cyber bullying(사이버 따돌림) ⑦Cyber extortion(사이버 갈취) ⑧Cyber coercion(사이버 강요)
Parameters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①Cyber verbal abuse(사이버 언어폭력) ②Cyber defamation(사이버 명예훼손) ③Cyber stalking(사이버 스토킹) ④Cyber sexual violence(사이버 성폭력) ⑤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신상정보 유출) ⑥Cyber bullying(사이버 따돌림) ⑦Cyber extortion(사이버 갈취) ⑧Cyber coercion(사이버 강요)
Independent variable	Gender	1=male(남), 2=female(여)
	Age	①twenties(20대) ②thirties(30대) ③forties(40대) ④fifties(50대)
	Income	①less than 2,000,000won(2백만원 미만) ②2,000,000~2,990,000won(2백만원~299만원) ③3,000,000~3,990,000won(3백만원~399만원) ④4,000,000~4,990,000won(4백만원~499만원) ⑤5,000,000~5,990,000won(5백만원~599만원) ⑥Over 6,000,000won(6백만원 이상)
	Self-control	The degree of consent to "I get excited about little things."("나는 작은 일에도 흥분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Family relations	①To encourage and cheer my decisions & choice(내 결정/선택을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 ② To be interested in how I do social life/school life(내가 사회생활/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있게 물어본다) ③To listen to and answer to when I ask my family a little things(사소한 것도 물어보면 잘 듣고 대답해 준다)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①respect(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 준다) ②Listening courteously(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준다) ③To share concern(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Online delinquency colleagues numbers	Whether or not colleagues who cause harm to others through teasing, bullying, threatening in chat, text, SNS, bulletin boards, etc (채팅, 문자, SNS, 게시판 등에서 친구나 선후배/동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피해를 주는 친구/동료)
	Internet usage time	The Internet use time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평일과 주말/공휴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Contact with illegal content	①Violent and cruel content(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②Rude content(야한 내용) ③slanderous remarks on neighbors or celebrities(주변인 혹은 유명인 등을 헐뜯는 내용) ④Disinformation(허위 정보)
	Cyberbullying victimization	①Cyber verbal abuse(사이버 언어폭력) ②Cyber defamation(사이버 명예훼손) ③Cyber stalking(사이버 스토킹) ④Cyber sexual violence(사이버 성폭력) ⑤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신상정보 유출) ⑥Cyber bullying(사이버 따돌림) ⑦Cyber extortion(사이버 갈취) ⑧Cyber coercion(사이버 강요)

• 동료 관계 : 주변 동료들과 관련해서 존중, 관심을 갖고 경청, 고민과 문제 공유 등 3개의 항목으로 측정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등 4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이버 요인에는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콘텐츠 접촉 경험, 온라인 비행 동료 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포함되었다.

• 인터넷 이용시간 : 평일 및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시간으로 측정했으며 응답자가 직접 이용 시간을 적도록 했다.

•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 불법 콘텐츠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야한 내용, 주변인 혹은 유명인 등을 헐뜯는 내용, 허위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에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 콘텐츠를 접촉한 경험 유무를 측정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등 4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 온라인 비행 동료 수 :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채팅, 문자, SNS, 게시판 등에서 놀림, 따돌림, 위협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친구/동료의 존재 유무’로 측정했다. 이 항목에 대해 ‘없음’, ‘1~3명’, ‘4~6명’, ‘7명 이상’ 중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6)가 제시하는 총 8가지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경험 여부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으로 측정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과 관련해서 최근 1년 동안 “전혀 없음”(1점)에서 “거의 매일”(5점) 등 5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개인별로 8점에서 최고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최저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적은 것이며, 최고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했다.

2) 매개변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사이버폭력이라는 특정 행위에 대해 문제행위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측정했다. 즉, 8가지 사이버폭력 하위 유형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측정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문제 된다”(4점)까지 4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개인별로 8점에서 최고 32점 사이에 분포하며 최저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며, 최고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해 부정적 또는 비판용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3)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8가지 사이버폭력 하위 유형에 대해 타인에게 실행했던 경험 여부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으로 측정했다. 이는 Meter and Bauman(2018)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측정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최근 1년 동안의 가해 경험 여부를 “전혀 없음”(1점)에서 “거의 매일”(5점) 등 5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은 개인별로 8점에서 최고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최저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적은 것이며, 최고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했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통계분석에 SPSS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성인의 성별과 연령 같은 개인 요인, 가족, 친구 등 환경 요인,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폭

력 피해 경험 등과 같은 사이버 요인 등의 특성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태도 형성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했다. 둘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등의 요인들이 일관된 응답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후, 매개변수인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수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PSS 22.0 버전의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SPSS에서 제공하는 PROCESS Macro를 통해 검증했다. 매개효과 검증시 기준에는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법이나 Sobel test를 이용했지만 매개효과 추정에 있어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한 기법이 Hayes(2013)의 분석 방법이다. PROCESS Macro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반으로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여 정규성 가정에서 자유로우며,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력이

가장 높은 분석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Hayes, 2013).

IV. 연구결과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일반 성인 남녀다. <표 2>는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51.3%, 여성이 48.7%이며, 연령은 20대 21.7%, 30대 23.2%, 40대 27.3%, 50대 27.8%였다. 소득 수준은 2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28.5%였으며, 200만 원대 28.3%, 300만 원대 17.1%, 600만 원 이상이 10.0%, 400만 원대 9.3%, 500만 원대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신뢰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표 2> 응답자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s

Division		Case	Ration(%)
Total		1,500	100
Gender	Male	769	51.3
	Female	731	48.7
Age	Twenties	326	21.7
	Thirties	347	23.2
	Forties	410	27.3
	Fifties	417	27.8
Income	less than 2,000,000won	428	28.5
	2,000,000~2,990,000won	424	28.3
	3,000,000~3,990,000won	256	17.1
	4,000,000~4,990,000won	139	9.3
	5,000,000~5,990,000won	103	6.8
	Over 6,000,000won	150	10.0

위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등으로 제시한 하위 요인들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표 3). 환경 요인 중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사이버 요인 중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사이버폭

력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등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확인했다. 이들 변인들 모두 사회과학분야의 신뢰도 기준인 .6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표 3〉 변수별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by variable

Variable	Item Average	Total Average	sd	Cronbach Alpha
Self-control	-	2.193	.7195	-
Family relations	① 2.903	2.8147	0.5846	.795
	② 2.717			
	③ 2.825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① 2.924	2.8611	0.5221	.778
	② 2.886			
	③ 2.773			
Online delinquency colleagues numbers	-	1.333	.6478	-
Contact with illegal content	① 2.635	2.7549	1.1376	.890
	② 2.879			
	③ 2.892			
	④ 2.278			
	⑤ 3.091			
Cyberbullying victimization	① 1.405	10.601	5.2806	.950
	② 1.334			
	③ 1.443			
	④ 1.379			
	⑤ 1.277			
	⑥ 1.275			
	⑦ 1.252			
	⑧ 1.236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① 3.376	27.767	4.7220	.934
	② 3.515			
	③ 3.425			
	④ 3.507			
	⑤ 3.535			
	⑥ 3.469			
	⑦ 3.511			
	⑧ 3.420			
Cyberbullying perpetration	① 1.323	10.189	5.4811	.972
	② 1.267			
	③ 1.267			
	④ 1.265			
	⑤ 1.267			
	⑥ 1.271			
	⑦ 1.261			
	⑧ 1.269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Divis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Gender ¹	1											
2. Age	.014	1										
3. Income	-.291**	-.247**	1									
4. Self-control	.079**	-.026	.040	1								
5. Family relations	-.001	.087**	.071**	.022	1							
6. Relationship with colleague	.038	.036	.073**	.061*	.611**	1						
7. Internet usage time	.070**	-.311**	.025	.125**	.021	.052*	1					
8. Illegal content contact	-.016	-.138**	.119**	.133**	.057*	.097**	.197**	1				
9. Online delinquency colleague numbers	-.029	-.079**	.051*	.152**	-.056*	-.060*	.108**	.154**	1			
10. Cyberbullying victimization	-.079**	-.108**	.051*	.221**	-.126**	-.124**	.097**	.228**	.521**	1		
11. Attitude	.096**	.080**	.023	.009	.342**	.369**	.061**	.130*	-.279**	.356**	1	
12. Cyberbullying perpetration	-.062*	-.115**	.084**	.194**	-.136**	-.120**	.093**	.178**	.505**	.837**	-.403**	1

1)성별은 남자=0, 여자=1로 더미 변환

*p<.05, **p<.01

항목들의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3. 매개회귀분석

2)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r=.837$), 온라인비행 동료 수($r=.505$), 자기통제력($r=.194$), 불법콘텐츠 접촉 경험($r=.178$), 인터넷 이용 시간($r=.093$), 소득($r=.084$) 순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r=-.403$), 가족관계($r=-.136$), 동료관계($r=-.120$), 연령($r=-.115$), 성별($r=-.062$) 순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가해 경험과 관련하여 모든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인들 간의 영향 효과 분석과 함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개인 요인, 환경 요인, 사이버 요인, X)와 매개변수(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M)의 관계를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X)와 매개변수(M)를 동시에 포함했을 때 매개변수(M)와 종속변수(Y)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5〉는 사이버폭력 피해 영향 요인(개인, 환경, 사이버 요인)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계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이다. 1단계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영향 요인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개인 요인중 소득

($\beta=.010$, $p=.663$)과 자기통제력($\beta=.042$, $p=.059$)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30.3%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해서는 Durbin-Watson 값이 2.013으로 1~3 사이에 속하여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VIF(공선성 통계량) 값을 확인한 결과도 각각의 변수에 대한 값이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beta=.053$, $p<.05$)인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beta=.065$, $p<.01$)인 경우 저연령자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beta=.053$, $p<.01$)와 동료관계($\beta=.202$, $p<.01$) 모두 원만할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무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터넷 이용시간($\beta=.065$, $p<.01$)과 관련해서는 이용시간이 길수록,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beta=.180$, $p<.01$)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행 친구 수($\beta=-.146$, $p<.01$)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beta=-.280$, $p<.01$)과 관련해서는 친구 수와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신의 직접적인 사이버폭력 경험과 주변 사람들에 의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영향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들의 경우도 청소년들과 유사하게 스트레스나 긴장의 분출을 위해 비행 행위를 한다는 일반긴장이론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차별접촉이론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될수록 사이버폭력 행위를 허용하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 영향 요인(개인, 환경, 사이버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0.8%의 설명력을 갖고 있

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Durbin-Watson 값은 1.945로 1~3 사이에 속하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의 비행 동료 수($\beta=.092$, $p<.01$)와 관련해서는 동료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beta=.784$, $p<.01$)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연구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성별, 연령, 소득, 자기통제, 가족관계, 동료관계,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과 같은 변인들이 성인들에게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 영향 요인(개인, 환경, 사이버 요인)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1.8%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Durbin-Watson 값은 1.931로 1~3 사이에 속하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beta=-.121$, $p<.01$)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즉,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지닐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특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지목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종합하면, [연구가설 1-1]과 관련해서 성인의 성별과 연령, 소득, 자기통제력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가설 1-2]와 관련해서 가족관계 및 동료관계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구가설 1-3]과 관련해서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등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온라인 비행

친구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의 경우도 일반긴장이론에 따른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차별접촉이론의 관점에서 주변 요인에 의해 사이버폭력 가해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2-1, 2, 3]과 관련해서 개인 요인중 성별, 연령, 환경 요인중 가족관계와 동료관계, 사이버 요인 중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등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저연령자, 가족관계 및 동료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이용시간이 적고, 불법 콘

텐츠 접촉 경험이 적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비행 친구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해서는 친구 수가 많고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가를 확인했다. <표 5>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했다.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드러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소득과 자기 통제력을 제외하고 독립 변인들의

〈표 5〉 매개회귀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1Step			2Step			3Step		
		Attitude(X→M)			Cause Variable(X→Y)			Cause Variable(X, M→Y)		
		USC		SC	USC		SC	USC		SC
		B	SE	β	B	SE	β	B	SE	β
Constant		18.479	.832		1.409	.625		4.006	.709	
Individuals	Gender	.504	.216	.053*	.081	.162	.007	.151	.160	.014
	Age	.276	.101	.065**	-.131	.076	-.027	-.092	.075	-.019
	Income	.023	.053	.010	.052	.040	.020	.048	.039	.019
	Self-control	.279	.148	.042	.064	.111	.008	.103	.109	.014
Environment	Family relations	1.280	.221	.158**	-.308	.166	-.033	-.128	.165	-.014
	Relationship with colleague	1.823	.249	.202**	.040	.187	.004	.296	.187	.028
Cyber	Internet usage time	.039	.014	.065**	.002	.010	.003	.007	.010	.011
	Contact with illegal content	.749	.095	.180**	-.098	.071	-.020	.007	.072	.002
	Online delinquency colleague numbers	-.1063	.186	-.146**	.739	.140	.092**	.629	.139	.074**
	CB victimization	-.250	.024	-.280**	.814	.018	.784**	.779	.018	.751**
Mediation	Level of attitude to CB	-		-				-.141	.019	-.121**
F value		66.018			364.451			53.965		
Adjusted R square		.303**			.708**			.718**		

*p<.05, **p<.01
 ※CB=cyberbullying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유무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유무와 온라인 비행 동료 수 및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등으로 나누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유무의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 값은 각각 -.6467과 -.1790으로 구간 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다. 하지만, 독립변인들에 대한 종속변인의 영향에 대한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들 변인에 의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는 완전 매개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온라인 비행 동료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에는 <표 7>에서와 같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 값은 각각 .0553, .2078로 구간 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다. 또한 총효과(LLCI=.5268, ULCI=1.0702, $p < .01$) 및 간접효과(LLCI=.4084, ULCI=.9457,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온라인 비행 동료 수 및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간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부분 매개 모형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연령, 자기 통제력,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등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 매개

<표 6>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완전 매개효과 Bootstrapping 결과
<Table 6> Results of Bootstrapping Full Mediation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Variable			Coeff.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Boot. LLCI	Boot. ULCI
Gender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Cyber-bullying perpetration	-.6482	.2752	-1.1879	-.1084
Age			-.3155	.1312	-.5729	-.0582
Family relations			-.2951	.0990	-.4893	-.1010
Relationship with colleague			-.2688	.1109	-.4863	-.0512
Internet usage time			.3041	.0186	-.0024	.0706
Contact with illegal content			.8271	.1238	.5843	1.0699
Total			-.4040	.1182	-.6467	-.1790

<표 7>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부분 매개효과 Bootstrapping 결과
<Table 7> Results of Bootstrapping Partial Mediation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Variable			Coeff.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Boot. LLCI	Boot. ULCI
Online delinquency colleague numbers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Cyber-bullying perpetration	.7985	.1385	.5268	1.0702
Cyber-bullying victimization			.8182	.0170	.7849	.8515
Total			.1214	.0388	.0553	.2078

모형을 보여주었고, 온라인 비행 친구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부분 매개모형을 보여주었다. 결국,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느냐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청소년들과 상이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서 사이버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라는 내적 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행됨을 확인한 것이다.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과 같은 요인들은 사이버폭력의 직접 영향 요인이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대한 태도의 형성을 통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온라인 비행 동료 수는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형성을 통해서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밝혀져 향후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관용적인 인식을 심어

〈표 8〉 가설검증 결과 및 해석
 〈Table 8〉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is	Detailed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is 1-1	gender →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jection
	age →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jection
	income →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jection
	self-control →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jection
Hypothesis 1-2	family relations →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jection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jection
Hypothesis 1-3	Internet usage time →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jection
	Contact with illegal content →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jection
	Online delinquency colleague numbers → Cyberbullying perpetration(+)	adapti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 Cyberbullying perpetration(+)	adaption
Hypothesis 2-1	gender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adaption
	age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adaption
	income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rejection
	self-control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rejection
Hypothesis 2-2	family relations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adaption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adaption
Hypothesis 2-3	Internet usage time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adaption
	Contact with illegal content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adaption
	Online delinquency colleague numbers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adapti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 Level of attitude to Cyberbullying(+)	adaption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밝힌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의의라 할 수 있다.

V. 제언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오해(Nycyk, 2015)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했다.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대응책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성인의 사이버폭력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일반 성인 대상의 2019년도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상에 비행 행위를 하는 동료가 존재하는 경우($\beta=0.074$, $p<.01$)와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경우($\beta=-.121$, $p<.01$), 그리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beta=751$, $p<.01$)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이용 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등과 같은 요인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Park & Jeoung 2018; Lee & Woo, 2010), 연령(Lee & Lee, 2017), 자기 통제력(Jang & Park, 2018), 가족 관계(Wang, et al., 2009), 친구 관계(Lee, 2012; Lee & Lee, 2015; Jun & Lee, 2010), 인터넷 이용시간(Lee & Lee, 2013; Wolak, et al., 2007),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등이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반면 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에 비해 도덕성이 발달된 성인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등과 같은

개별 요인만으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 비해 성인은 어느 정도 도덕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듯이 여러 영향에 의해 형성되어 내재된 도덕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이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또한, 다른 성인대상의 연구에서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Jun & Kim, 2016)한다던가, 직장 동료 관계, 사회문제 관심같은 사회요인, 폭력적인 콘텐츠 이용 같은 온라인요인 등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Lee & Lee, 2017)을 미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이들 변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 변인들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간에는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변인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의 형성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의 새로운 관계가 확인됐다. 지금까지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에 가담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초등학생(Choi, 2015), 중·고등학생(Kim & Min, 2014; Lee & Jeoung, 2014), 대학생(Jun & Kim, 2015) 등의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의 가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 연구(Jun & Kim, 2016)들이 이를 증명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보복의 측면에서 사이버폭력 가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주장(Jun & Kim, 2016; Wright & Li, 2013)

과, 보복에 대한 즉각성 때문에 사이버폭력을 선호한다는 주장(Jun & Kim, 2016)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가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행위를 용인하는 이유도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즉, 성인들은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사이버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어 가해행위에 대한 죄책감 없이 사이버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 피해의 경험을 통해 남들이 내게 했듯이 똑같이 복수하겠다는 차원도 있지만 남들이 내게 하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이라는 인식이 생겨 사이버폭력을 실행한다고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alvete, et al.(2010)은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는 즉흥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인 행동에 따른 결과임을 밝혔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사이버폭력 가해가 즉흥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성인의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시 즉각적인 보복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통해 계획적인 형태로도 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이용 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요인 등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보여주었다. 또한, 온라인상에 비형 동료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 역할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예를 들

어, Lee & Jeong, 2014; Lee, 2006 a, b; Heirman & Walrave, 2012; Pabian & Vandebosch, 2013)를 넘어 성인들의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단순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무관용적인 태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현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50~60%를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사에서는 집단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디지털 혐오 경험이 반영된 경우가 있다. 크게 보면 혐오 또한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명확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청소년들과 유사해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보다 명확한 성인 사이버폭력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후속 연구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통일된 법률은 아직 없으며, 개별 법률에서 사이버폭력 개별 유형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Lee, et al., 2015). 따라서 성인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조항 등을 하나로 묶고 사이버따돌림이나 사이버감옥 등과 같이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 방식 등을 정

하는 등 새로운 법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 호주에서 제정을 준비 중인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법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무관용적 태도 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이버폭력을 실행할 경우 처벌이 충분히 광범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적발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해 사이버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는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기초한 독립변인들을 일부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으로는 주로 우울과 공격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울한 청소년이 현실 도피적 이유로 사이버공간에 빠져 있다 가 사이버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Kim(201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우울은 사이버비행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and Hwang(2015)의 연구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의 3차 년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불안감, 우울감, 공격성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인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서만 분석한 자료이지만, Park and Jeong(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부정적 자아 등이 사이버 언

어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변인들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성인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야기한다. 즉,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옹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서도 좀처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양적으로 측정하는데 따른 충분한 시사점 도출의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추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등의 기법을 통해 내재적이고 잠재적인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인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두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언 등을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dams, C. (2010). "Cyberbullying: How to make it stop." *Instructor*, 120(2), 44-49.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Aoyama, I., Utsumi, S. & Hasegawa, M. (2012). "Cyberbullying in Japan: Cases, government reports,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and parental monitoring roles." In Q. Li, D. Cross, & P. K. Smith (Eds.), *Cyberbullying in the global playground: Research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183-201. West Sussex: Wiley-Blackwe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an, T & Li, Q.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2), 15-33.
- Calvete E, Orue I, Esteve’z A, Villardón, L. & Padilla, P. (2010). “Cyberbullying in adolescents: modalities and aggressors’ profi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1128-1135.
- Choi, J. (2015). “Influence of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on Cyber Bullying :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Moderation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y.” *Crisisonomy*, 11(5), 195-214.
- {최진오 (2015).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5호, 195-214.}
- Chung, Y., Kim, M., Kim, B., Jeun, E. & Ko, K. (2016). “Review Paper about Cyberbullying Studies: Cyberbullying Scal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1), 1-23.
- {정여주·김민지·김빛나·전은희·고경희 (2016). 사이버폭력 연구 동향과 과제: 사이버폭력 척도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7권 1호, 1-23.}
- Cross, D., Barnes, A., Papageorgiou, A., Hadwen, K., Hearn, L. & Lester, L. (2015). “A social-ec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reducing cyberbullying behavio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3, 109-117.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Fisher, B. W., Gardella, J. H. & Teurbe-Tolon, A. R. (2016). “Peer Cyber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 Associa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Meta-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 1727-1743.
- Görzig, A. & Machackova, H. (2015). “Cyberbullying from a socio-ecological perspective: A contemporary synthesis of findings from EU Kids Online.” *Media@LSE Working Paper #36*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 Heirman, W. & Walrave, M. (2012). “Predicting adolescent perpetration in cyberbullying: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sicothema*, 24, 614-620.
- Hinduja, S. & Patchin, J. W. (2007).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 Hirschi &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lif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wang, J. (2008). “An empirical study on explanatory factors of linguistic violence in internet billboard.” Ma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황지영 (2008). <인터넷게시판상의 언어폭력의 설명요인에 관한 경험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보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Jang, J. (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delinquency Factors on Cyberbullying among Teenagers.” Mater’s Thesis. Kyungk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장정현 (2009). <청소년의 비행요인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ang, S. & Park, E. (2018). “The Effects of Youth’s Empathy on Cyber-Bullying Behavior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Youth’s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2), 209-233.
- {장서연·박은영 (2018).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권 12호, 209-233.}
- Jun, S. & Lee, S. (2010). “Exploring Explanatory Factors for

- Youth's Cyber-bullying by Cell Phon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1), 159-181.
- {전신현·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 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권 11호, 159-181.}
- Jun, D. & Kim, D. (2015). "Does th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Influence Cyberbully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Public Policy Review*, 29(3), 157-180.
- {전대성·김동욱 (201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9권 3호, 157-180.}
- Jun, D. & Kim, D. (2016). "A Study on Adult's Cyberviolenc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0(3), 25-43.
- {전대성·김동욱 (2016).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0권 3호, 25-43.}
- Kaplan, K. (2014). *Teens taunted by bullies are more likely to consider, attempt suicide. LA Times (March 10)*, http://www.latimes.com/science/sciencenow/la-sci-sn-bullyingcyberbullying-suicide-risk20140310,0,3990497.story?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cheatsheet_morning&cid=newsletter%3Bemail%3Bcheatsheet_morning&utm_term=Cheatsheet%20Sheet#ixzz2veOzz1f5.
- Kim, H. & Min, J. (2014). "A Study on the Factors of Youth Cyberbullying : Focused on Off-line Bullying and Social Media Addiction."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8(4), 323-333.
- {김혜영·민정식 (2014).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온오프라인 폭력 피해경험 및 소셜 미디어 중독, 장기통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권 4호, 323-333.}
- Kim, J. (2013). "Influenc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on cyber and real-world delinquency mediated by types of internet us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31-59.
- {김지혜 (2013).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인터넷 활용 유형을 매개로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권, 31-59.}
- Kim, K. & Yoon, H. (2012). "Influences of Eco-systemic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Cyber Violence." *Journal of Youth Welfare*, 14(1), 213-238.
- {김경은·윤혜미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 체계변인의 영향. <청소년복지>, 14권 1호, 213-238.}
- Ko, E. & Hwang, S. (2015). "The Negative Impa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Adolescents' Cyber Delinquency."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7(3), 3-26.
- {고은희·황성현 (2015).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요인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7권 3호, 3-26.}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08). *Cyber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MA : Wiley-Blackwell.
- Kowalski, R. M., Giumetti, G. W., Schroeder, A. N., Lattanner & Micah, R. (2014). "Bully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140(4), 1073-1137.
- Kwon, J. & Kim, M. (2019).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Cyber Bullying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Game Addiction." *Journal of Wellness*, 14(2), 41-53.
- {권진·김미숙 (2019). 청소년의 포래캐처와 사이버폭력의 관계 연구 :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4권 2호, 41-53.}
- Lee, C. & Lee, K. (2013). "An exploration of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cyber bullying by youth : A focus on network characteristic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259-285.
- {이창호·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권 3호, 259-285.}
- Lee, C. & Lee, K. (2015). "The Influence of Social Solidarity on Cyberbullied Experience of Young People through Smartphone." *Locality & Communication*, 19(2), 33-59.
- {이창호·이경상 (2015). 사회적 유대요인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피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커뮤니케이션>, 19권 2호, 33-59.}
- Lee, J. & Woo, H. (2010). "A Study on the Intention toward Cyber Verbal Bullying: focusing on the perception to cyber libel/insult, age and the

- variable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7(1), 215-253.
- {이정기·우형진 (2010).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 인식, 연령,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권 1호, 215-253.}
- Lee, I. (2012). “A Study on the Status of Cyber Bullying and their Cause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um For Youth Culture*, 32, 91-118.
- {이인태 (2012). 초등학교의 사이버불링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2권, 91-118.}
- Lee, K. & Jeong, S. (2014). “Predictors of Cyberbully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ocial Learning Theor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1(2), 129-162.
- {이고은·정세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권 2호, 129-162.}
- Lee, S. (2006a). “Causes of Online-Violence and Its Prevention.”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18(2), 421-440.
- {이성식 (2006a).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권 2호, 421-440.}
- Lee, S. (2006b). “Testing the Effects of the Core Explanatory Variables on Youth’s Offline and Online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179-200.
- {이성식 (2006b).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분석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권 6호, 179-200.}
- Lee, S. & Jun, S. (2020). *Cyber Society Psychology*. Seoul : Jipmundang.
- {이성식·전신현 (2020). <사이버사회심리학>. 서울: 집문당.}
- Lee, S., Kang, J. & Lee, W. (2015). *A Study on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Violenc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 {이승현·강지현·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Lee, S. & Lee, C. (2017).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yber Violence: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 Group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9(5), 65-90.
- {이승현·이창환 (2017).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권 5호, 65-90.}
- Meter, D. J. & Bauman, S. (2018). “Moral Disengagement About Cyberbullying and Parental Monitoring: Effects on Traditional Bullying and Victimization via Cyberbullying Involve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8(3), 303-326.
- Moor, Robert (2011). *Cybercrime: Investigating high-technology computer crime*. Anderson Publishing.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Study on Classification of Cyber Violence*.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사이버폭력 유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2019 Cyber Violence survey*.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Nycyk, M. (2015). *Adult-to-Adult Cyberbullying: An Exploration of a Dark Side of the Internet*.
- Pabian, S. & Vandebosch, H. (2013).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o understand cyberbullying: The importance of beliefs for developing interventi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4), 463-477.
- Park, H. & Jung, H. (2018). “The factors affecting juvenile cyber verb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9(2), 217-240.
- {박현수·정혜원 (2018). 청소년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9권 2호, 217-240.}
- Patchin, J. W. & Hinduja, S. (2010). “Cyberbullying and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Health*, 80(12), 614-621.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9). *A Study on the State of Media Regulation and Legislation for Hate Speech in Foreign Countries*. Foreign Press Law & Institution Research Report
- {언론중재위원회 (2019).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적 연구.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 Raphael Cohen-Almagor (2018). “Social responsibility

- on the Internet: Addressing the challenge of cyberbully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9, 42-52.
- Samara, M., Burbidge, V., El Asam, A., Foody, M., Smith P. K. & Moris, H. (2017). "Bullying and Cyberbullying: Their Legal Status and Use in Psychological Assessment,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4, 1449.
- Satoshi Kanazawa (2012). *The Intelligence Paradox*. Fletcher & Co. Trans. J. Kim(2016). Yunphil.
{Satoshi Kanazawa 저 (2012) 김준 역(2020). <지능의 역할>. 연필.}
- Seo, H. & Cho, Y. (2013). "The Impact of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on Suicidal Thinking."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4), 111-131.
{서화원·조윤오 (2013). 사이버 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0권 4호, 111-131.}
- Shariff, Shahreen (2009). *Confronting cyber bully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 H., Han, E., Park, B., & Park, N. (2014). *A study on the motivation to cyberbullying to youth and control factor : focusing on mobile instant messag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심홍진·한은영·박병선·박남기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Slonje, R., Smith, P. K. & Frisén, A. (2013). "The nature of cyberbullying, and strategies for preven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26-32.
- Taiariol, J. (2010). "Cyberbullying: the Role of Family and School."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Wayne State University.
- Tokunaga, R. (2010). "Following you home from school: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omputer in human Behavior*, 26, 277-287.
- Vandebosch, H., Simulioniene, R., Marczak, M., Vermeulen, A. & Bonetti, L. (2013). "The role of the media." Smith, P. K., & Steffgen, G. Eds. *Cyberbullying through the new media : Findings from an international network*. NY : Psychology Press.
- Vogels, E. (2021). *The State of Online Harrassment*. Pew Research Center.
- Wade, A. & Beran, T. (2011). "Cyberbullying: The new era of bullying."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6, 44-61.
- Wang, J., Iannotti, R. J. & Nansel, T.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 Willard, N. (2007).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school officials in responding to cyber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64-65.
- Williams, K. R. & Guerra, N. G. (2007).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Internet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14-21.
- Wolak, J., Mitchell, K. J. & Finkelhor, D. (2007). "Does Online Harassment Constitute Bullying? An Exploration of Online Harassment by Known Peers and Online-only Conta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51-58.
- Wright, M F. & Li, Y.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Cyber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Cyber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Reje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5), 662-674.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4). "Youth engaging in online harassment: Associations with caregiver-child relationships, Internet us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J. of Adolescence*, 27(3), 319-336.
- Yoo, J. & Cho, Y. (2016). "Predictors of Behavioral Intention toward Cyberbullying: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1), 265-289.
{유재웅·조윤경 (2016). 계획된 행동 이론에 근거한 사이버 괴롭힘 행위 의도 예측 요인: 집단별(청소년, 대학생 및 직장인) 분석.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65-289.}